

## 제18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마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 강 성 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제18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이하 세계대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120개국 4,550명이었고, 발표자는 466명으로 세계대회 역사상 참가자와 발표자 규모가 가장 큰 대회이었다.

대회는 6월 29일에 안전보건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개막행사와 환영만찬이 열렸다. 6월 30일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전체회의가 열렸고, 이어 기술세션, 심포지엄, 발표자 코너가 개최되었다. 7월 1일에는 기술세션, 대륙별회의, 심포지엄, 발표자 코너가 열렸고 저녁에는 대회공식 만찬이 개최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2일에는 심포지엄과 폐막식이 열렸고 오후에는 6개 분야로 나뉘어 사업장 견학이 실시되었다.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포스터 발표가 있었고, 국제필름페스티벌과 안전보건전시회도 개최되었다.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노·사·정·학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선언서 즉 서울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전체회의, 기술세션, 심포지엄, 발표자 코너,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약 600편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결과, 각 국의 제도,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의 모토는 Safety and Health: A Societal Responsibility(안전과 보건: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이라고 정했다. 대회의 모토에 social 대신에 societal 이라고 쓴 것은 안전과 보건의 책임이 사회 어느 한 곳의 책임이 아니라 노·사·정·학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한글로는 사회 각 주체라고 번역하였다.

###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란?

세계대회(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하여 1955년에 로마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세계대회이다. 세계대회는 주로 유



럽지역에서 개최되었다. 1955년의 첫 대회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제 15차 대회는 1999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 제16차 대회는 2002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되었고, 제17차 세계대회는 2005년에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었다. 미국대회에는 112개국에서 1,392명의 외국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두 2,607명이 참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1993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대회가 유일하였고 이번 서울대회가 두 번째이었다.

ISSA(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은 각 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들의 국제모임으로 1927년에 유럽에서 결성되어 1951년에 세계 조직으로 확대된 ILO의 산하조직이다. 2008년 현재 150여개 국가에서 350여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단체, 기구들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은 사회보장업무를 하는 정회원 기관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준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정회원이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SSA에는 예방위원회를 포함한 11개의 기술위원회가 있고 예방위원회에는 11개의 분야가 있다. 11개 분야는 농업, 화학산업, 건설업, 교육 및 훈련, 전기, 보건서비스, 정보, 철강 및 금속, 기계와 시스템안전, 광업, 그리고 연구분야이다.

### 세계대회 참가규모

서울대회 참가자 4,550명 중 외국인 참가자는 1,536명으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올랜도대회의 1,392명보다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하였다. 국내참가자는 일반참가자가 2,540명, 일일참가자가 319명, 학생이 122명이었고 33명의 기자가 참가하였다. 외국인은 일반참가자가 1,365명, 일일 참가자가 6명, 학생이 38명, 동반자가 119명, 기자가 8명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28개국 537명, 유럽이 32개국 576명, 아프리카가 32개국 136명, 미주가 18개국 214명, 아랍이 8개국 47명, 대양주가 2개국 26명이었다.

대회 개막전에 각국의 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계 대표, 경영계 대표, 국제산업안전보건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안전보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국내 8명, 국외



38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첫 날 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5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기술세션은 2일간에 걸쳐 6개 분야에서 41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엄은 46개 분야에서 250건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심포지엄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이 19개 분야 92건이었으며, 건설이 2개 분야 14건, 보건이 25개 분야 144건의 발표가 있었다. 각 대륙의 안전보건문제를 다루는 대륙별회의가 대륙별로 한 차례 개최되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는 2일간 10여개의 발표자 코너를 만들어 연구결과를 구연하도록 하였다. 전체 구연 발표자 수는 총 81개의 세션에서 466명으로 직전대회의 274명을 크게 능가하였다. 각 세션별 참석자 수는 전체회의(괄호안은 외국인 참석자 수)에는 1,650명(742명), 기술세션에는 1,807명(660명), 대륙별회의에는 1,234명(521명), 심포지엄에는 3,284명(1,314명), 발표자 코너에는 967명(396명)이었다. 구연

발표와는 별도로 2일간 포스터 발표공간이 개설되었다.

### 안전보건대표자회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mmit)

그간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국제적 활동은 활발하였으나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이 뜻을 함께 모은 선언서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각계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합의된 선언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ILO의 사무처장이 Assane Diop이 주관을 하여 ISSA와 안전공단이 영문 초안을 만들고 참석자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은 후 대회 공식언어인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였다. 최종안은 세계대회 개막식 직전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참석자 46명이 모두 서명하였다. 대표자회의에는 한국에서는 노동부장관,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자동차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GS 칼텍스 부회장이 서명하였고, 외국에서는 말레이시아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장·차관 8명, 노조대표, 사용자 대표와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Jorma Rantanen 회장, 세계인간공학회(IEA) David Caple 회장, 이탈리아산업안전보건연구원 Antonio Moccaldi 원장이 서명하였고 ILO 사무처장, ISSA 회장과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서명하였다.

서울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 보장협회(ISSA),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계기로 고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사회보장기구 대표, 정책 결정자 및 정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안전보건 대표자회의에서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전 세계에서 직업과 관련된 재해와 질병으로 연간 230만 여 명이 사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세계 총생산의 4%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면 작업조건, 생산성,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세계화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같이 진행한다.

ILO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권고와 같은 문서가 중요하고, 이러한 문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ISSA와 회원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 증진,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은 ILO 설립목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Decent Work Agenda)에서 가장 중요하다.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ISSA의 사명이며, 적극적 사회보장의 개념적 체제(Conceptual Framework of

Dynamic Social Security)에서 가장 중요하다.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훈련과 상담,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그리고 예방대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대책을 장려하고 치료, 지원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사회보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및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노력한 결과, 진전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산업안전보건의 국가 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안전보건 예방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2. 국가의 안전보건 예방문화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존중하는 것이며, 정부, 사업주, 근로자는 명확한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하며, 예방의 원칙을 최우선시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3. ILO 산업안전보건협약(1981년) 제155호 제2절의 규정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장려한다.

4.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에 관한 협약 (2006년) 제187호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우선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협약을 이행하여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수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증진토록 한다.
  - 국가 안전보건 예방문화를 조성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강력하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제도 등 적절한 안전보건 기준을 집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을 보장한다.
  
5.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기업의 우수한 사업실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활동에 재해예방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작업장 안전보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조언, 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에 참여하도록 한다.
  
6.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받는다.
  -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력한다.
  
7.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생산적인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

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토론의 장이다.

8. 2011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계기로 그간의 산업안전보건 추진성과를 검토한다.
9. 안전보건대표자회의 참석자 모두는 안전보건 예방문화를 증진하고 산업안전보건의 국가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한다.

### 전체회의

개막식 후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5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ILO의 Al-tuwajiri 산업안전국장장은 작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ILO 협약 187호를 각국이 비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에 대한 ILO 협약은 산업안전보건을 국가 정책에 우선 순위로 두고 노사정이 협력하여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인도 노동부 차관은 인도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소개하였다. 인도는 2008년을 산업안전보건의 해로 지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 산재보험조합(DGUV) 회장은 세계화에 따른 근로자 건강문제를 지적하고 국제적인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U에서는 2007-2012 기간에 작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지역전략을 수립하여 각 회원국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Max Lum 국장은 John Howard 원장을 대신한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겪었던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 NIOSH에서 최근 연구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구 사용, 소방관의 건강보호, 나노물질에 대한 연구, 정보의 공유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폴란드 국립연구원의 원장은 유럽 각국의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IL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참여라고 하고, 기존의 제도가 대기업 위주였는데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WHO의 산업보건팀의 Ivan Ivanov, ILO Toru Itani 본부장, 한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등의 토론이 있었다.

## 기술세션

기술세션은 3개 주관기관(ILO, ISSA, KOSHA)가 각각 2개 씩을 맡아 진행하였다. 기술세션은 대회 공식언어인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동시통역이 제

공되었다.

ILO는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주제하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ILO 지침, 태국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개발과 실행, 프랑스의 사례, ILO 지침의 적용, GM의 안전관리체계, 독립국가연합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 아르헨티나의 사례 등 전 세계에서 실행되는 각종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전략과 프로그램이란 주제에서는 ILO협약 187호의 글로벌 전략, 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대책,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전략, 영국의 전략 프로그램, 나이지리아와 개발도상국의 사례,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전략 등이 발표되었다.

ISSA는 작업조건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작업조건 변화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작업조직의 새로운 형태, 미국 이주건설노동자의 건강문제, 비정형 경제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문제, 일본 건설현장의 직업병, 노조를 통한 안전보건 개선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문제, 산업안전보건 책임 범위의 확대, 고령근로자의 인간공학적 안전, 신기술과 자동화로 인한 평생 학습 문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력체계, 이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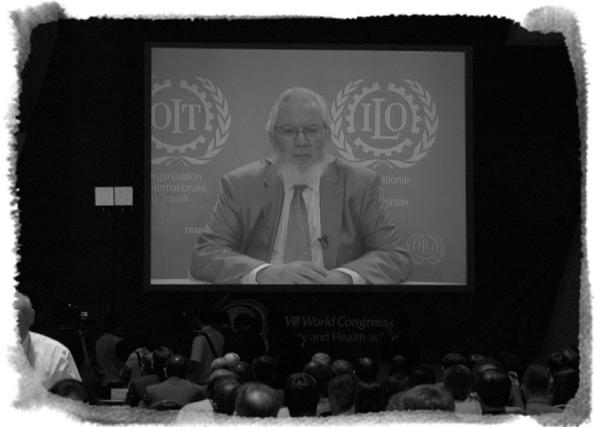
안전공단이 주관한 기술세션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하에 안전보건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공유,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건 문제, 근로자 건강권, 사업장의 환경운동, 체계적인 안전보건 접근 방법, 안전보건 관련 제품 인증 문제, 새로운 교육훈련 방법 등이 발표되었다.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주제로는 한국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능력 함양, 안전보건 사업의 리더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전문화 조성,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미국의 성공 사례, 다국적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ILO, WHO 등 51개 기관이 참여하여 48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되었다. 심포지엄은 주관 기관이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심포지엄의 구성에 따라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로부터 석면이나 독성학까지 다양한 분야가 개설되었다. 발표자료는 초록은 초록집으로 발표하고 연자에게 발표내용을 4 페이지 정도의 전문으로 요청하여 CD로 수록해서 참석자에게 배포하였다.

심포지엄의 주제를 크게 산업안전보건관



리, 전통적 유해요인 분야, 지역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새로운 유해요인 분야, 작업구조와 사회적 분야, 산업안전보건연구, 건설분야, 안전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되었던 주제를 소개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WHO 주관의 BOHS:1) 산업보건 기초산업보건 서비스(BOHS)의 글로벌 격차 해소 2) WHO의 제1차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산업보건서비스 3) 기초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ILO의 접근방법 4) 태국의 1차 보건의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초산업보건서비스 모델의 발전 5) 중국의 기초산업보건서비스 6) 베트남의 기초산업보건서비스의 현재와 발전방향 7) 브라질의 기초산업보건서비스 성공사례 8) 한국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산업보건서비스의 성과 9) 튀니지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프로그램이 산업보건발전에 미친 영향

EU OSHA주관의 유럽 국가간의 협력:1) 유럽 연합 2007-2012 산업안전보건 전략 2) 유럽공동체의 산업안전보건 목표와 도전 3) EU-OSHA의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지역 캠페인 전략 4) 의식고취관련 회원국의 경험 - "길을 밝혀라" 캠페인에 대한 혁신적 홍보 5) 유럽 노조의 경험: 혁신적 의사소통과 상호협력 6) 유명인사를 활용한 캠페인 방안 7) 주목! 의식고취: 캠페인 기법

ISSA, WHO, 유럽건강증진네트워크(ENWHP) 주관의 산업보건 및 예방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로서의 사회보장:1) 사회보장-산업보건증진 및 예방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 2) 사업장의 기초 보건-재해예방을 위한 독일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성공적 협력 3) 직업병과 관련된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협력 계획 4) 장애자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성공 사례

미국 인증기관(UL)의 안전보건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1) 글로벌 환경보건안전 프로그램 구축 2) UL과 디즈니의 안전 3) 안전과 함께 선도하는 최고를 위한 길 4) 위조 - 21세기 범죄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리더의 비전

미국 안전협회(NSC) 주관의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경영:1) 경쟁수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2)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특성 3) 품질, 환경, 안전·보건 통합 경영전략 4) 수학적으로 증명된 안전지표를 통한 사업가치 제고 및 리더십 증진

캐나다 재해예방협회(IAPA) 주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위한 종합적 접근방법:1) 싱가포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2) 슬로바키아의 안전보건 실행에서의 상승효과 3) 캐나다 IAPA와 함께 하는

건강한 작업장 모델 4) 근로자의 가치와 문화 - 근로자와 가치에 직접 전달되는 안전의사소통 5) 감독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국제사용자기구(IOE) 주관의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1) 국제사용자기구의 안전보건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직구조와 구성원 지원 2) 한국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방법 3) GM의 최우선 안전관리 4) 프랑스 베올리아워터의 안전보건정책 5) 룩셈부르크 아르셀로르 미탈사의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정책

일본중양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주관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장 활동: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싱가포르 사례 2) 인도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슈 및 사례 3) 인도네시아 국가 안전보건 운동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4)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 홍콩 사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에 적용되는 안전제어 이론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IOSH) 주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발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국제적 시각:1) 경영시스템-안전과 경영 통합 시스템 방법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지역문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기법 3) 기업의 지배구조:환경보건안전 전문가의 역할 4) 안전경영시스템을 보건경영시스템으로의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활동

국제안전보건전문기관네트워크(INSHPO)주관의 안전보건전문가 자격의 국제적인 통용성:1) 안전보건전문가 자격 인증 - 미국의 견해 2) 안전보건전문가 자격 인증 - 캐나다의 견해 3) 안전보건전문가 자격 인증 - 오스트레일리아의 견해 4) 안전보건전문가 자격 인증 - 뉴질랜드의 견해 5) 안전보건전문가 자격 인증 - 싱가포르의 견해 6) 안전보

건전문가 자격 인증 - 영국의 견해

### 전통적 유해요인 분야

ISSA의 석면 심포지엄: 1) 스위스의 석면관련 질환 - 의학적 측면 2) 석면관련 질환 - 법적 및 경제적 영향 3) 인도의 석면 소비 증가 - 관련원인 4) 석면의 발암성에 대한 국제암연구소(IARC) 및 WHO의 평가, 전 세계 석면 관련 암의 최근 현황 5) 독일의 석면 사용현황 6) 국제적 백석면 금지에 대한 전망 7) 태국의 석면의 건강 유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ILO 주관의 석면관련 질병 퇴치를 위한 ILO의 대책: 1) ILO의 석면관련 정책 2) WHO의 석면관련 질환 예방 제언 3) 태국의 석면관련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4) 베트남의 석면관련 질병 예방 실행계획 5) 전 세계 석면 질병 사망률 -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6) 석면관련 질병의 역학 및 한국의 석면 금지를 위한 정책개발 7) 석면 대체물품 개발 8) 러시아의 석면관련 질병 예방계획 9) 국제목공노련(BWI)의 석면 사용금지 실행계획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주관의 석면사용 금지와 석면질병 예방을 위한 국제노동조합 연맹의 캠페인: 1) 석면 노출에 의한 직업병근로자 인정을 위한 노력의 사례 연구 2) 석면의 국제적 사용금지: 필리핀 건설노동조합과 국제건설목공노련의 협력

KOSHA, 세계산업위생학회(IOHA), 한국산업위생학회 주관의 작업환경관리: 1) 호주의 다양한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 2) 이탈리아의 제한지역 내 평화유지군의 공기 중 유독물질 노출에 대한 보호 및 작업안전의 기본원칙 3)

독일의 폐기물 수거 근로자의 공기질, 온도 및 위생 4) 왜 모든 광물질 섬유는 다른가: 오늘날 작업환경에서 각 광물질 섬유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5) 한국의 산업화학물질 관리체계 6) 일본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GHS 실행 및 화학물질 위험관리 7) 카자흐스탄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8) 스웨덴의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전달체계 구축사례

국제산업위생학회(IOHA), KOSHA, 한국산업위생학회 주관의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도구 개발: 1) 화학물질의 위험관리를 위한 국제 활동 2) 국제산업위생학회(IOHA)의 화학물질 관리도구 개발 노력 3)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점검표 4) 건설업 유해인자 관리도구 5) 인도 남부의 화학물질 관리도구 적용사례 6) 한국의 산업화학물질등급 관리도구 7) 작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GHS 체계 구축 및 실행

국제운수노련(ITF)주관의 사업장에서의 제반활동을 통한 HIV/AIDS 퇴치: 1) 작업장 HIV/AIDS 대책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및 아프리카의 성공사례 2) 가봉의 작업장의 HIV/AIDS 퇴치를 위한 경험 3) 취약계층의 HIV/AIDS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제 근로자기구의 활동: 방글라데시 사례 4) 작업장의 AIDS 및 성접촉 전염질병 퇴치 국가 프로그램: 이라크 사례 5) ILO의 HIV/AIDS 프로그램 6) 산업보건 서비스를 통한 HIV/AIDS 대책 7) 작업장의 HIV/AIDS에 대한 근로자 교육 8)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계획에 통합된 작업장의 HIV/AIDS 예방관리 프로그램

대한산업의학회, 농촌진흥청, 미국 NIOSH 주관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건강 영향: 1) 농업분야에서의 안전보건 중재 프로그램 소개 2) 모델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건강상태평가 연구 및 결과 3) 농업

관련 사고의 현황 및 관리 4) 건강한 농업 중재를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 연구 5) 미국 농부의 살충제에 의한 급성 중독

### 지역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인도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KISA) 주관의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1) 안전보건에 대한 국가간-사업장간 인식차이 증대 2) 3개 대륙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력: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새로운 도전과 우수사례 3)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범미주보건기구(PAHO)의 향후 미주지역의 안전보건전략과 프로그램: 1) 건강관리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방안: 결과 및 경험 2) 주사에 의한 상처 예방에 초점을 둔 파트너십 구축 모델(베네주엘라) 3) 의료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콰도르/페루) 4) 폭력 및 재해예방(자메이카) 5) 폭력 및 재해예방을 위한 10년간의 노력(콜롬비아) 6) 미주지역의 규폐증 제거(미국 사례) 7) 칠레의 규폐증 제거를 위한 전략

멕시코산업보건협회 주관의 라틴아메리카지역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1) 브라질 사업장 안전보건조직(OBESST)의 책임 2) 크리소타일 석면에 관한 진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손실일수

아프리카지역노동행정센터 주관의 아프리카의 산업안전보건제도/체제/과정의 강화: 1) 아프리카의 노동행정센터의 역할 2) 우간다 산업안전보건제도 강화: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의 전략 개선 3) 개발도상국의

산업보건 법규 적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 튀니지의 사례

### 새로운 유해요인 분야

ISSA와 미국 NIOSH 주관의 나노기술의 안전확보 방안(국가별 접근방법): 1) 미국의 안전한 나노기술을 위한 지침 2) 한국의 안전한 나노기술을 위한 활동 3) 일본의 안전한 나노기술을 위한 활동 4) 호주의 안전한 나노기술 실행계획 고찰 5) 프랑스의 나노입자 흡입 측정: 현재 방법과 요구사항 6) 독일의 작업장의 초미세 및 나노 입자에 대한 노출 측정 7) 안전한 나노기술 계획의 국제적 고찰: 연구 격차 및 향후 방향

ICOH, KOSHA, KIIHA 주관의 21세기의 산업보건: 1) 21세기의 글로벌 노동력: 동향 및 도전 2) 심혈관질환 산재보상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망간으로 인한 직업병의 미래 5) 근로자 암 조기검진 증진방안: 건강신념 모델에 근거한 교육적 전략 제안 6) 콜롬비아 고위험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안전행동 개선 성공사례 7) 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험성 평가 및 산업보건 감시프로그램

한국안전학회,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주관의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해법: 1) 웰빙 시대의 산업보건 2) 호주의 안전경영 3) 응급 재난에 대응하는 BCP와 산업안전보건 전략 4) 사업장 안전, 보건, 환경과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과 영향에 관한 연구 5) 해킹에 대한 최근 현황과 대응 분석 6) 근로감독교육 향상을 위한 맞춤형 e-러닝 코스의 발전과 활용

## 작업구조와 사회적 환경, 비정형 근로자의 보건문제

ILO 주관의 비정형 근로자의 산업보건: 1) 아시아 지역 비정형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점 2) 태국의 수공예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서비스 3) 중앙 아시아: 가내 농업분야의 양질의 근로 4) 남미 지역의 비정형 근로자의 건강증진 5) 방글라데시의 농업안전 개선활동 6) 캄보디아 비정형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 방안 7) 세네갈 차량정비소 안전보건 시범사업 사례

대한산업의학회와 미국 NIOSH 주관의 작업환경변화와 근로자 건강: 1) 업무부하 평가 및 심리적 조절기능에 대한 여러 의식적인 요구와 무인식의 영향 2) 변화하는 작업장에서 대두하는 안전보건 문제 3) 트럭 운전기사의 산업안전과 근골격계질환 4) 심박수 변이상태: 직업관련성 만성 심장질환의 새로운 원인 측정

민주노총 주관의 취약계층에 대한 산업보건: 1) 서있는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전략 2) 한국 건설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점과 대책 3) 취약근로자 보호 4)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벨기에 산업보건협회(PREVENT) 주관의 고령근로자 관리(거시적 차원의 대책): 1) 고령근로자의 고용 가능성 2) 벨기에의 보건의료부분 고령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평가 3) 미국 건설업 고령근로자의 안전 향상 4) 고령근로자에 대한 OSHC-ILAPI 협력 안전보건증진 프로그램 5) 필리핀에서 고령근로자의 문제 6) 고령근로자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소음에 의한 청각손실 및 이명

독일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주관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응하는 작업: 1) 유럽의 고령 정책 활동 2) 브라질 노동력 개인의 조기 능력저하가 미치는 영향 3) 안전코치 - 젊은 근로자 및 고령근로자를 위한 윈윈 프로젝트

한국산업간호협회 및 학회 주관의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1) 손톱 미용 산업 여성근로자에게 대두되는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위험성 2) 폴란드 여성의 작업관련성 스트레스 및 EU 산업안전보건 정책 3) 일본 간호사의 장기근무, 장기결근 및 이직의향 사이의 관계 4) 한국 간호사의 직장폭력에 관한 조사 연구 5) 유기용제 취급 여성근로자의 기형아 출산 위험

ILO 주관의 성차별 철폐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원탁회의

ILO 주관의 이주근로자와 사회적 보호: 1) 이주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 2) 이주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증진 3)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세네갈) 4)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국제노동검사협회)

미국안전협회(NSC) 주관의 저학력 또는 문맹 이주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1) 안전관리 체계에서의 사회의 책임 2) 이민자 융합을 위한 기회 2) 세계적인 기준 및 적합성 평가 교육을 위한 모델(UL) 3) 새로운 안전보건 의사전달 기술 4) 멕시코의 비료 및 농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사소통과 교육훈련 설계 사례 5) 성인교육 이론과 안전에 관한 학습: 낮은 학습의 근로자에 대한 학습 서클 접근 사례

## 근골격계분야

국제인간공학회(IEA) 주관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의 적용과 발전 1)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인간공학적 체크포인트 활용 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절차 근로자 참여 방안 3) 인도의 중소 사업장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평가 4) 한국 제조업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대책 5) 근골격계질환 유발 위험 제거를 위한 외래환자 진료소의 환전 카운터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 6) 근원적 결과를 도출하는 인간공학 대책 프로그램:운송업 사례연구 7) 근골격계 부하 감소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

일본인간공학회 주관의 사업장의 강력한 전략으로서의 개선(KAIZEN) 활동:1) 개선활동 증진 방안 및 사례연구 2) 회사의 개선활동 전문가 육성을 위한 개선활동 교육훈련 향상방안 3) 연령을 고려한 산업안전위생 대책 4) 일본 중소기업의 개선활동 방법에 관한 연구 5) 제철공장의 개선사례 6) 개선활동 증진 방안 및 사례연구

KOSHA 주관의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간공학 적용사례:1)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KOSHA의 역할 2) 선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조선업의 도전, 향상 그리고 기회 3) 현대중공업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4) 인간공학적 작업현장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감소 및 안전문화 향상 5) 인간공학 T.F.T 운영 성공사례 6) 조선업의 인간공학적 위험 감소를 위한 디지털휴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7) 한국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체제 발전방안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범태평양인간공학회 주관의 인간공학을 활용한 작업환경 개선:1) 산업보건분야

작업자세 직접 관찰 활용방법 2)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회심리적 위험성 관리를 위한 유럽의 제도 개발 3) 휴먼에러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4) 보행방법에 따른 하지 관절 가속력 연구 5) 산업위생환경 분야의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감시 서비스 6) 작업장에서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및 직업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연구

## 연구분야

보건연구세계포럼(GFHR)와 WHO 주관의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1) 세계적인 연구 우선과제 설정 방법 2) 이탈리아의 산업안전보건 연구 우선순위 설정:접근방법 및 결과 3) 제7회 범아프리카 산업보건 컨퍼런스에서 확인된 연구 우선순위 4) 영국의 취약근로자에 대한 연구 5) 인도의 산업보건 연구에 관한체계 및 공동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6) 남미 직업병 연구정책

일본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의 산업안전보건연구 진흥을 위한 국가 전략:1) 일본에서의 산업안전보건증진 연구전략 2) 미국 산업보건 연구 의제 3)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연구 전략 4) 이탈리아의 규제 및 관리적 측면의 새로운 안전보건 전략과 정책

## 건설분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독일건설재해보험조합 주관의 건설업 안전보건:1) 브라질 Minas Gerais 주 건설업 업무관련 사고(2000-2005) 2) 독일의 건설업에서 직접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3) 독일의 학습조직 개념을 이용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 방안 4) 핀란드의 건설업에서 상해 예방을 위한 중재의 효과 5) 호주의 건설업 하도급자의 안전

문화 6) 터키의 대형 건설 공사 안전보건관리 의 도전 6) 미국의 건설업 안전보건에 대한 도전 7) 영국의 건설업에서 전도와 추락의 상관관계

KOSHA 주관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적용과 추진효과: 1) 개착식 역사와 터널 건설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 2) 튀니지 건설분야에서의 산업안전 실행계획 3) 대형 토목 공사에 대한 실용적인 산업안전보건자문에 대한 도전 4) 두바이 초고층빌딩 안전경영시스템 5) 중공업 건설 프로젝트의 비상사태 피난훈련기법으로써 컴퓨터 시뮬레이션

### 안전분야

KOSHA 주관의 중대산업사고 예방기술: 1) 일본의 정유산업 안전지원시스템(PEC-SAFER)의 발전 2) 이탈리아에서 산업시설에서 잠재사고에 대한 위험 신호 3) 한국의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실행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4) 미국의 산업분진 폭발 위험관리 5) 한국의 PSM제도의 효과 평가

독일재해보험조합(DGUV)이 주관하는 산업현장 안전을 주도하는 하이테크 제어시스템: 1) 전자 제어장비의 안전표준 2)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위험분석 3) 안전 자동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기술, 글로벌 표준 및 공개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및 장비 효율성 증진 방안 4) 인쇄기계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설계시 안전사항 반영 5) 작업장 안전 및 로봁컨트롤셀 생산시스템 공장의 고도 생산성 달성 6) 레이저 스캐너 - 외부 도전

### 우수사례

듀폰사 주관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1) 포르투갈

의 인간존중을 위한 안전보건, 2) 인도의 행동안전의 경험 3) 스위스 피르메니히사의 안전보건경영과 성과 4) 미국 듀폰의 안전우수사례

ISSA 주관의 소규모 사업장의 우수 사례: 1) TQM 전략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이행방안 : 알제리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례연구 2) 독일의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3)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II 4) 한국의 위험성 평가 및 체계적인 감사 위주의 안전보건관리 실무사례 5) 캐나다의 온라인을 통한 소기업 민원해결 및 안전보건 정보활용 지원용 안전계산기 6) 호주에서 산업안전보건 개선 프로그램에서 사업주 분할 모델의 영향력

북아일랜드 엑스퍼트이지사(EEI) 위험관리-실패한 패러다임: 1) 권한-신념의 도약 2) 패러다임의 변화-안전보건관리를 고려한 응용시스템 3) 제품설계시 위험성 관리의 원칙

### 발표자 코너

발표자 코너는 일반 대회의 구연과 같은 형식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와는 달리 참석자에게 좀더 많은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기술세션과 심포지엄을 늘렸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의 발표공간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10개 발표장을 마련하여 109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발표와 질의응답은 영어만을 사용하였다.

## 포스터 세션

포스터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모두 233편이 발표되었다. 일반대회에서는 포스터 발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제작해서 가져오게 하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장이 매우 산만한 경우가 많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최측에서 포스터 내용을 받아 같은 모양으로 실사출력을 하여 게시하였다.

**XVIII World Congres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t Work PS01-46**

**Training of Occupational Health Safety Personnel in Turkey**  
Ali Naci Yildiz  
Hacettepe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re are diffe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bout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prepared by ILO such as C. 161,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1965 and R. 171,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ecommendation, 1965. According to international regulation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must cover all kinds of work and the main function should be "preventive". Main functions of this services are provide information to workers and employer (health risks in the workplace), measure and promote "healthy status", should be a "team-work" - medical and technical personnel work together.

In Turkey workplaces employing 50 or more workers are obliged to employ an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and nurse. Although there are approximately 6,000 workplaces physicians, the exact number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sn't known.

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unit is a legal requirement for the workplaces employing 20 or more workers in Turkey. Physician, nurse and safety engineer works in such a center; all should have a certificate.

The main function of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is preventive measures such as pre-employment and periodic health examinations, and health education. Besides these functions the physician also gives treatment services for simple and daily health problems. Physician time at a particular workplace depend on the risk level of the workplace and number of workers. The number of workplaces implementing contemporary occupational health principles has been increasing.

Training of physicians is more than hours programme. In one-third of the period theoretical basis of occupational health issues, such as concep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edical, engineering and legal aspects are discussed. Main institutions such as relevant Ministries,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titute and relevant branch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visited. Training of physicians also have a practice education at an occupational health unit where a full time physician is working.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physicians has long been conducted by Turkish Medical Association and more than 30 thousand physicians attended and completed that training co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ccupational health service team. The training, tasks and working conditions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are described in December 2003. Training of nurses is 90 hours and they also have a clinical practice of one week at an occupational health unit.

Safety engine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hazardous factors in the workplace. Training of safety engineers is 90 hours completed two weeks time. Then engineers also spend a week at an occupational safety unit.

Following the theoretical education period the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succeed the written examination.

Poster No. PS01-46  
Contact: anyildiz@yahoo.com

## 국제필름 및 멀티미디어 페스티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된 내용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영화, 단편,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발표되었다. 필름은 112편, 멀티미디어는 47편 등 모두 159편이 출품되었다. 이를 주관한 ISSA의 전기분과 및 정보분과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 139편을 선정하여 대회기간 중에 발표하였다. 6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폐막식에 시상을 하였다.

## 특별회의

세계대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 주관하는 특별회의도 개최되었다. 국제산업안전보건정보센터(ILO-CIS)는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검색 방법을 시연하는 특별시연회를 가졌다.

ISSA는 산재예방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1개 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및 사회보장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WHO는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 회의를 대회 전에 개최하였다. 산업보건에 대한 전세계의 64개소의 협력센터 중 약 30개 기관이 참석하여 WHO의 산업보건 활동계획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해 토의하였다.

기타 국제안전보건전문기관 네트워크 회의, 미국안전협회의 Campbell Award 회

의, 워진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등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산업 안전보건기구(APOSHO) 연차 총회도 같이 개최되었다.

### 폐막식

폐막식에서는 ILO의 알투와이리 산업안전국장과 ISSA 예방특별위원회의 마리 위원장의 산업안전보건대회의 하이라이트와 미래의 비전에 대한 발표에 이어 초청연사인 Jeffery A McNeely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McNeely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운동가로 환경과 산업안전보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국제필름 및 영상페스티벌에서 수상한 6편의 작품이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9월에 제19차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터키에서 노동부차관이 나와 차기 대회 유치선언을 하고 폐회하였다.

### 대회를 마치며

이번 세계대회는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었다. 우선 참가자 수에서 과거 대회는 물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세계대회와 비교해도 가장 참가자수가 많았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외국인 참가자

수가 많았던 이유는 지난 3년간 안전공단에서 각종 학회에 참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영향이 크다. 국내에서는 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을 전공한 교수나 전문가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흠이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석면문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control banding,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또는 산업보건서비스, 근골격계질환의 평가와 관리 문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산업보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발표되고 토의되어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음에도 국내 산업보건전문가들은 많이 참가하지 않아 몹시 아쉬웠다. 다만 산업의학전공의들이 비교적 많이 참가를 한 것은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대회 진행도 매끄러웠다. 40여명의 각국의 장·차관급의 귀빈들이 참석하여 대표자회의를 하고, 2,000여명이 참석하는 개막식과 환영만찬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미국 대회 56개 세션보다 훨씬 많은 81개의 세션이 개설되고, 16개의 심포지엄이 동시에 열렸는데도 발표진행의 흐름에 끊김이 없었고, 발표장도 지나치게 붐비거나 한가하지 않은 규모로 잘 배정이 되었다. 구연발표자도 466명으로 전대회의 274명을 압도하였다. 포스터 발표는 주최측에서 출력을 해서

게시함으로써 안정되고 통일된 이미지를 주었고 발표자가 가볍게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태 지역의 산업안전보건대회인 APOSHO가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진행에 차질이 없었다. 설문에 의한 국외 참가자의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96.6% 수준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선언서를 채택한 것도 처음이었다. ICOH 회장 Jorma Rantanen에 의하면 10여 년 전부터 ILO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단지 전문가들만의 선언이 아니고 ILO, WHO, ISSA 등 국제기구와 10여 개국 정부의 장·차관, 국제경영자단체 및 대기업의 회장단, 국제노동단체장 및 국내노동단체장, ICOH와 IEA 같은 국제 전문기관의 대표 등이 모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대회 기간 중에 주로 예방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ICOH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ISSA가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안전공단 직원들의 자원봉사도 헌신적이었다. 행사진행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지만, 약 200여명의 안전공단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여 접수, 진행, 공항안내, 통역,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다. 특히 20여명의 사진동호회 직원들이 회의장 곳곳을 다니며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다음날 게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하였다.

국가적으로도 여행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1,536명의 외국인 참가자 중 약 50여명의 개발도상국 참가자가 참가경비 지원을 받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자비로 한국에 와서 대회참가비를 내고 약 1주일간을 머물며 대회참석 및 한국관광을 하였다. 관광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학회나 대회 참가자는 일반 여행객의 약 5배 이상의 외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120여명의 외국 참가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대회 후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 이상 머물면서 관광을 하여 여행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